

도서정가제가 시행...서점 풍경

“책 값 거품 빠지겠지만 동네 서점 살릴지 의문 당장 소비자 부담 늘어”

인터넷 대형 서점 매출 소폭 감소...동네는 변함없어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 세종문고.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첫날, 서점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한산했다. 이날 인문학 도서를 정가에 구입한 최 모(여·40)씨는 “필요한 책이 있어 마침 근처에 나왔다가 서점에 들렀다”며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계없이 종전처럼 서점에 나와 책을 구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로 도서 판매량이 대형 인터넷 서점과 중소 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날 싼값으로 책을 구매하려는 독자들이 사이트가 마비되었던 대형 인터넷 서점은 21과 22일에 들어서 전주에 비해 판매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24 관계자는 “시행 전날 사이트 폭주로 인해 구매를 하지 못한 신간 구매자 및 필수 구매자들이 21일 다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낮 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며 “그러나 21일 하루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전월 대비 16.6%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중소 서점은 이전과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첨단 세종문고 이승용 점장은 “책을 구매하러 오는 손님이나 판매량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줄거나 늘지는 않은 것 같다.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독자들은 발품을 팔아 자신이 원하는 책을 산다는 데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인 것 같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 정가를 도서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시 표시된 정가에 맞춰 팔도록 하는 제도다.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의 예외 부문 도서까지 모두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적 가격 안정 기대
제도가 공감하는 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책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책값의 거품이 빠져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값을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내년 부터는 출판사들이 책값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상당 부분 빠질 것이라고 본다”며 “결국 소비자들은 거품이 사라진 가격으로 양질의 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판사 또한 할인보다는 질 좋은 콘텐츠로 승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중소 동네 서점 살릴 수 있을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도서 한 권당 평균 구매 가격은 22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도서정가제는 고사 위기에 직면한 중소 출판사와 지역서점을 위해 도입됐다. 그

리나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에 맞게 중소 출판사와 동네 서점 업계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산구 신창동 시민문고 이윤애 대표는 “인터넷 서점은 오래 전부터 할인을 해 동네 서점에 비해 싸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심어졌다”면서 “제도 시행으로 책값이 싸든 안 싸든 손님들이 동네 서점으로 발길을 돌리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도서정가제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이어 이 대표는 “이 제도가 마치 중소 서점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큰 혜택은 없다. 장기적으로 거품이 많은 단행본 가격이 정상가로 환원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송광룡 문학대 대표는 “과거에는 신간에 한해서 10% 할인(포인트나 배송료 제외 순수 책값) 혜택이 있었지만 정가제가 시행되면서 15%까지 가능해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대형 서점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소비자 “자칫 단통법 우려” 시각도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도서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당장 과도한 책값 상승에 직면하게 돼, 적잖은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거주하는 김순아씨는 “19%로 할인되던 도서가 제도 시행으로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만큼의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취지는 좋지만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는 것은 문제다. 자칫 소비자와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모두 불만인 제2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 수업교재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교재 값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간(舊刊) 가격 재조정 등 합정
할인을 15%제한이라는 조치 이전에는 ‘구간 재조정’이라는 합정이 숨어 있었다. 신간이 18개월 뒤 구간으로 바뀌면 재고 도서에 대해 출판사들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신간 1만원짜리가 1년 6개월이 지나면 7000원이든 5000원이든 출판사가 알아서 낮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개정안에 따라 15% 더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간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간 구매력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출판, 유통업계가 이 합정에 벗어나기 위해 자율 협약을 맺고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속력이 없어 얼마나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21일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첫날, 광산구 월계동 첨단 세종문고를 찾은 독자들이 가판대에서 책을 살펴보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디언 수니·‘시노래 울림’ 박경하 초대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진선미 국회의원 ‘동행’



인디언 수니 진선미 의원

김원중의 달거리 11월 공연이 2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포크록 음반 ‘내 가슴에 달이 있다’로 데뷔,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노래로 주목 받고 있는 가수 인디언 수니가 출연한다. 또 울산을 대표하는 노래 그룹 ‘시노래 울림’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하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바둑프로젝트(임웅·김영훈·김현우), 느티나무 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가 함께하며 주홍씨가 샌드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의 이야

기 손님은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 활동중인 진선미씨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 섰던 진의원은 최근 혈연과 혼인관계를 뛰어넘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법률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했다. 무대 미술을 맡은 작가는 서양화가 류현자씨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후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더하면 된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

‘쩍이의 열전’ 흥겨운 타악의 세계

하늘다래예술단 남도소리 공연...26일 광주문예회관

‘흥겨운 타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하늘다래예술단(대표 정인성)이 광주문예회관(관장 임인섭)이 기획한 남도소리 상설 공연 무대에 선다. 26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창작 타악 퍼포먼스 ‘쩍이의 열전’은 전통과 현대,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진 국악 퓨전 콘서트다.
한국의 화려한 모듬북과 일본의 다이코(북), 드럼의 리듬이 어우러진 첫곡 ‘아시아의 역동’이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며 장구춤과 흥겨운 설장구 가락이 어우러진 ‘장구놀이’, 대금 독주곡(김승호 연주) ‘비류’ 등이 이어진다. 또 가·무·악이 어우러진 타악 퍼포먼스 ‘놀이’에서는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한 음악적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모두가



함께 부르는 국악 동요, 국악가요 등도 만날 수 있다. 피날레 곡은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하는 ‘퓨전 난타’다.
지난 2002년 창단한 하늘다래 예술단은 ‘힘찬 소리가 나에게 힘이 되었다’, ‘힘’, ‘새로운 시작’ 등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펼쳐왔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62-521-3620.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전문목 네번째 책 나와

광주문화재단 내일 기념식...28일까지 전시회

‘광주의 문화 속살’을 소개하는 광주전문목 네번째 책이 발간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5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문화관광탐험대의 네 번째 광주전문목’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28일까지 결과전시회를 연다.
이번 ‘문화관광탐험대의 네 번째 광주전문목’은 7개 장 25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외지인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경우 하루 또는 1박 2일 탐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소개했다.
또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대인예술아시장, 유스퀘어 등 청년들의 즐길거리와 동곡마을 꽃게장, 일곡과 용봉지구의 맛집거리, 북촌문화공간인 ‘해와’, ‘coboc, #reboot, gout’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한편 문화관광탐험대는 주부, 개인택시기사, 숲 해설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4번째 운영해 오고 있다. 문의 062-670-742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문목

Advertisement for '이제 만나러 갑니다' (I'm going to meet you now) on Channel A. It features a group of women in colorful dresses and a man. Text includes '매주 일요일 밤 11시' and a list of participating artists and their programs.